

2016년 고령층(55~79세) 노동시장 특징

김복순*

I. 머리말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는 L자형의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2017년 경제 사정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2%대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고용은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용구조를 들여다보면 고령층 중심의 고용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은 고령층의 고용이 전체 고용증가폭 둔화를 완화시켜 주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동력이 대거 고령층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2016년(1~10월 평균) 고령층은 생산가능인구의 28.6%에 달한다.¹⁾ 그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수치를 발표하는 나라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며 노인의 절반이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고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가구가 한 번 빈곤상태로 진입하게 되면 빈곤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통계도 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령층 중심의 고용증가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인구고령화가 초래하고 있는 고령층(55~79세) 내부의 고용구조 변화를 2016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고령층(60세 이상)의 소득과 빈곤이동 실태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래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면, 고령층의 노동력을 고령층의 니즈에 부합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고령층 일자리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eesaram@kli.re.kr).

1) 본고에서 고령층은 55~79세로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 중 높은 연령층에서는 은퇴가 시작되었으며, 베이비부머 대부분이 50대 후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주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본고의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80세 이상 고령층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80세 이상 고령층은 생산가능인구의 3% 수준으로 이들 중 취업자는 농림어업이나 도소매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에 집중되어 있다.

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한다.

II. 고령층(55~79세) 고용증가폭 확대

1. 고령층 고용증가세는 2016년 고용증가폭 둔화 완충역할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 또한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으로 2%대의 저성장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성장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에서도 고용지표들은 꽤 많은 수치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6년(1~10월 평균, 이하 2016년) 고용증가폭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여러 기관들이 전망했던 증가폭을 밑도는 수준인 29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구직활동은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으나 3.8%라는 높은 실업률은 우리 노동시장 현실의 방증이라고 하겠다.

여러 고용지표들을 통해, 2016년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고용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증가폭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인구효과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고령층의 생산가능인구는 12,425천 명으로 전년동평균대비 554천 명 증가했으며, 취업자는 324천 명 증가하였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령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이들이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실업률은 소폭 낮아진 반면, 고용률은 상승하였다.

<표 1>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 의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현재 53.9%로 전년동평균대비 0.2%p 상승했으며, 세부연령별로도 모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핵심연령층을 벗어나 은퇴 직전·직후의 나이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거나, 은퇴 후 재진입하고자 구직활동을 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2016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고령층 중에서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상승했으며, 이들 중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중에 ‘생활비에 보탬’이 차지하는 비중이 58.0%로 가장 높았다. 남녀 고령층 모두 높았으나 특히 장래 근로하고자 하는 여성 고령층의 61.3%가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결과로 고령층의 고용률은 전년동평균대비 0.2%p 상승한 52.4%를 기록하였다. 세부연령별로는 50대 후반(0.3%p ↑)과 65~79세 고연령층(0.2%p ↑)에서 고용률 상승을 견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50대 후반 인구증가폭은 둔화(전년

동평균대비 164천 명 ↑)했으나 취업자는 소폭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상승했고, 65~79세 고령층은 인구증가폭(8만 명)의 차이 만큼 거의 대부분이 취업자로 흡수되면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64세 연령층의 인구증가폭은 확대된 반면 취업자는 인구증가폭에 못미치는 수준에 그쳐 고용률이 전년동평균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고용률을 성별로 보면 2014년 8월 이후 고령층 여성고용률 증가폭이 남성을 추월했으며, 그 추세가 2016년까지 유지되고 있어 고령층 고용을 여성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6년 8월 이후 고령층 남성고용률 증가폭이 여성을 상회하는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2016년 9~10월 고령층 남성의 고용추세 변화는 주로 건설업, 운수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서 주도하고 있어 이들 산업의 특성상 괜찮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고령층(55~79세) 노동시장 지표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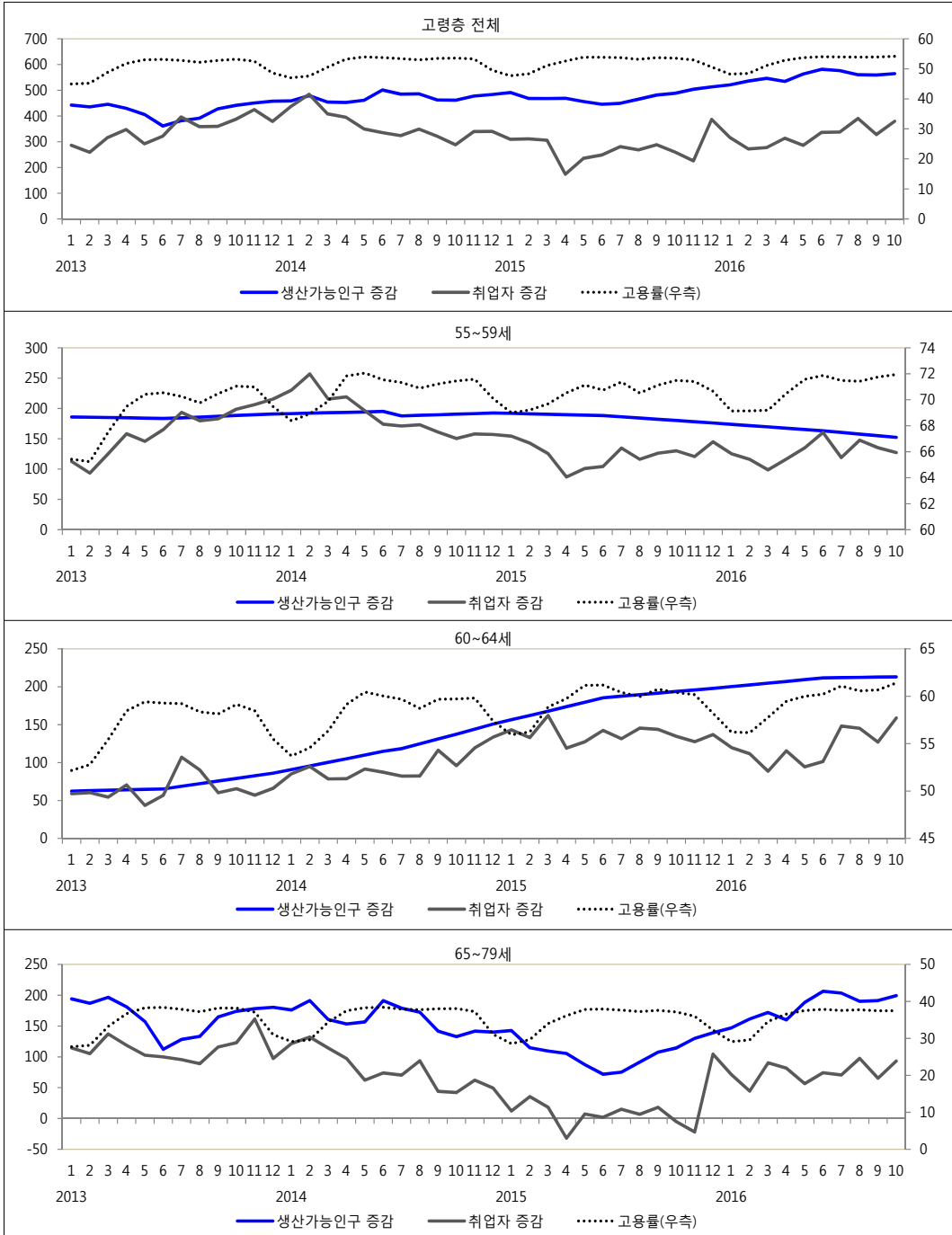
		2005	2010	2015	2014. 1~10	2015. 1~10	2016. 1~10
생산 가능 인구 증감	전 체	384	376	475	470	468	554
	55~59세	113	181	186	192	187	164
	60~64세	4	86	182	113	179	209
	65~79세	267	109	107	166	102	182
취업자 증감	전 체	182	192	275	369	268	324
	55~59세	64	145	124	195	122	128
	60~64세	15	42	137	89	138	121
	65~79세	103	5	13	85	8	75
경활률	전 체	47.6	49.1	53.5	53.3	53.7	53.9
	55~59세	64.9	68.3	72.6	72.5	72.6	72.8
	60~64세	54.5	55.5	61.1	59.9	61.2	61.3
	65~79세	33.7	33.8	36.0	36.7	36.3	36.5
고용률	전 체	46.7	47.7	52.1	52.0	52.2	52.4
	55~59세	63.1	66.5	70.6	70.8	70.5	70.8
	60~64세	53.4	53.7	59.4	58.2	59.5	59.4
	65~79세	33.4	33.0	35.2	35.9	35.4	35.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노후설계가 미흡했든지, 그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든, 아니면 일하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든 일을 하고자 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평균대비 324천 명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증가폭 둔화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그림 1] 고령층(55~79세) 생산가능인구 증감·취업자 증감·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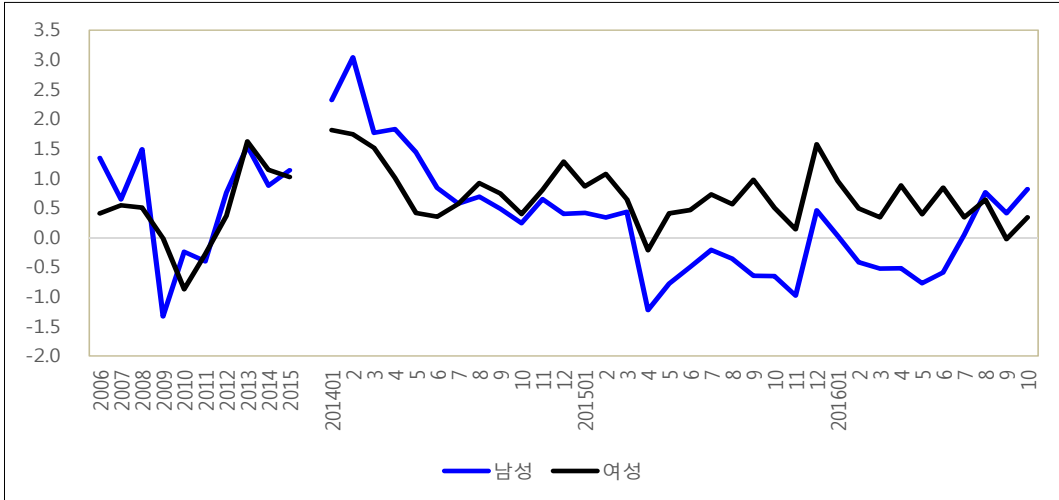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고령층의 성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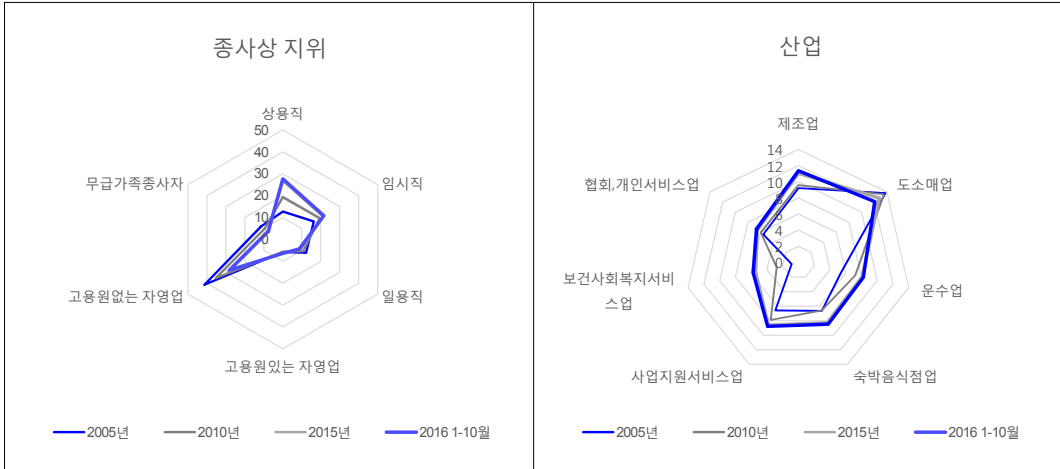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노동시장 핵심연령층인 30~40대의 경우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고령화 속에서 고령층에서는 어떤 일자리가 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을 보면 고령층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고령층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자영업을 하면서 노동시장에 머물렀으나, 자영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2016년 현재 고령층 자영업 비중은 34.5%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 세부 연령별로 보면 각 연령 집단별로 종사상 지위별 변화에 차이가 관찰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나홀로 사업체들은 주로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내수에 민감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영업 비중이 감소하면서 고령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08년을 기점으로 고령층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자영업 비중을 추월하여 2016년 현재 고령층의 57.9%가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중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년이 지난 고연령층(65~79세)에서는 임시직 중심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층의 상용직은 2011년 20%를 넘어 2016년 현재 27.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고령층 상용직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반면 임시직 증가폭(전년동평균대비 117천 명 ↑)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용직 증가=괜찮은 일자리 증가’라고 하기에는 상용 비정규직 비중

[그림 3] 고령층의 종사상지위와 산업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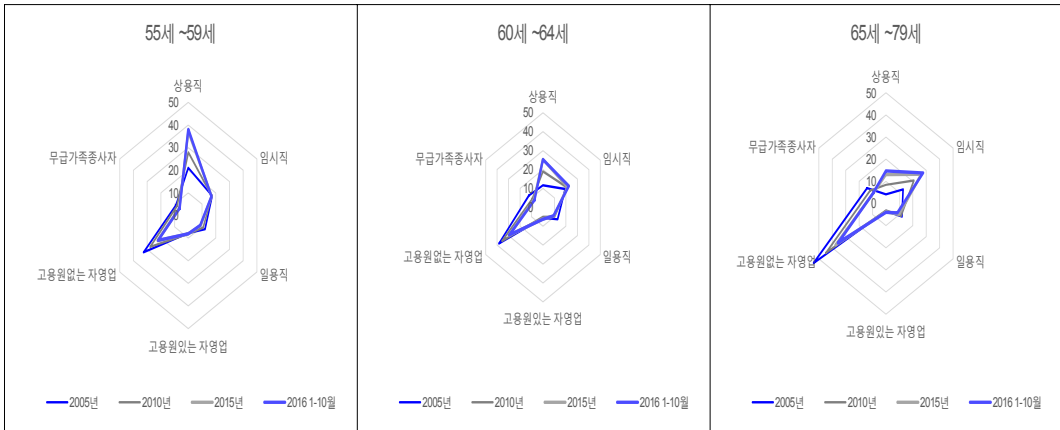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고령층의 세부연령별, 종사상지위별 비중 변화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2)

고령층의 근로형태별 비중을 보면, 비정규직 비중은 2016년 8월 현재 53.8%로 1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고, 특히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15년에 이어 40%를 넘어섰으며 전년동월대비 7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을 보면 고령층의 36시

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를 보면, 고령층의 상용 비정규직은 2016년 8월 현재 32.8%로 나타났다(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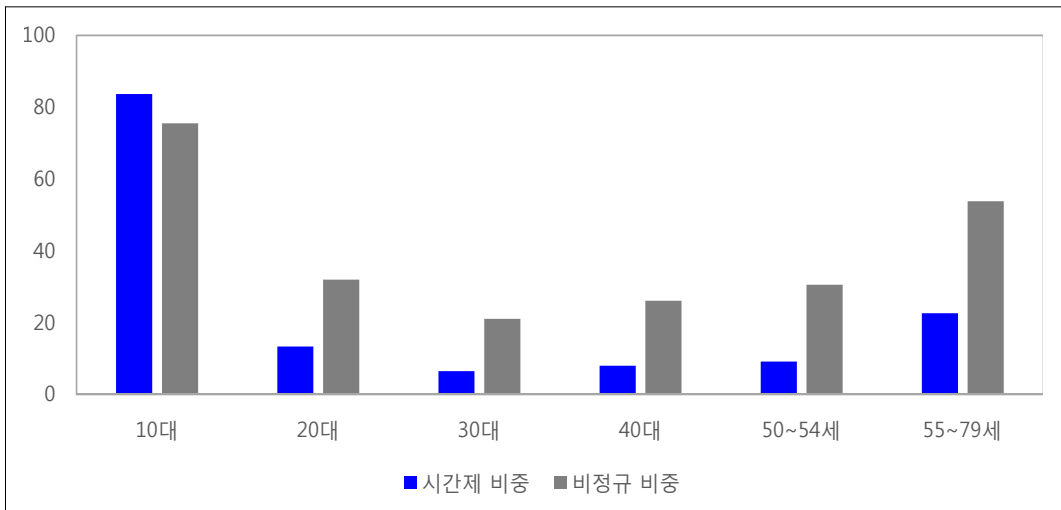
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증가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2016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장래 일자리를 희망하는 고령층이 여러 일자리 선택 기준 중에서 ‘일의 양과 시간대(26.9%)’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 여성의 경우 3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시간제 근로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일자리를 산업별로 보면, 10년 전에는 농림어업, 도소매업, 청소경비관련 직종을 중심으로 한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요양시설, 복지관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등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고 있으며, 택배·화물차 운송 등이 포함된 운수업, 서비스·판매직을 중심으로 한 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고령층 고용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를 보면, 고령층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농림어업의 기여도가 가장 크지만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에는 도소매업, 제조업의 기여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연령별로 보면, 정년·은퇴 직전인 55~59세 연령층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면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60~64세 연령층에서는 제조업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기여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연령별 시간제 근로 비중·비정규직 비중 비교(2016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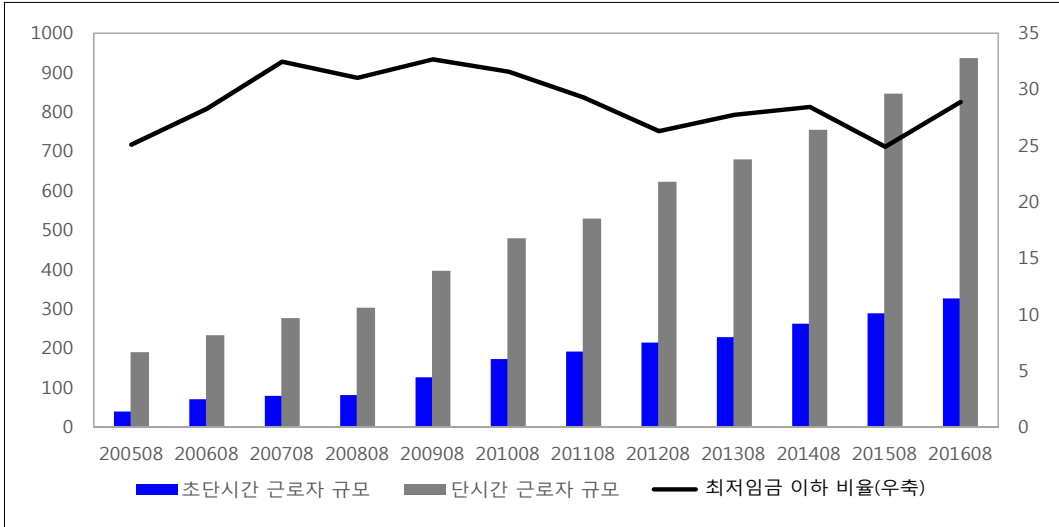
(단위 : %)



주 : 시간제 비중은 비정규직 내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고령층(55~79세)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과 단시간근로자 규모 추이

(단위 : %, 천 명)



주 : 단시간 근로자는 36시간 미만 근로자이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10년간(2005년과 2015년) 고령층 고용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를 보면 산업별 변화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2005년에 비해 운수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에서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단순노무직종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일자리로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60세 이상 고령층 임금근로자 대부분은 정년·은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노동 시장에서 쌓은 숙련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소경비와 관련된 단순직종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면 고령층의 일자리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2016년 9월 24일) 정부는 일을 통한 장년 행복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장년고용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일을 하고자 하는 장년 개개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수요 측면에서 이들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고 세대간 기술전수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고령층의 고용증가가 전체 취업자의 고용증가폭 둔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령층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고용이 불안정하고, 여타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령층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는 44.3%로 고령층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훈련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고령층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고령층 고용률의 산업별 기여도

	산업별 기여도	고용률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 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	협회, 개 인서비스
55~79세	2005	46.7	14.5	4.3	6.4	2.5	3.1	3.1	0.4	2.6
	2010	47.7	10.9	4.6	6.5	3.4	3.2	3.8	1.3	2.8
	2015	52.1	7.9	5.8	6.7	4.2	4.3	4.5	2.8	3.4
	2014. 1~10	52.0	9.2	5.4	6.5	4.3	4.1	4.2	2.6	3.3
	2015. 1~10	52.2	8.1	5.7	6.7	4.2	4.3	4.5	2.8	3.4
	2016. 1~10	52.4	7.4	6.0	6.3	4.3	4.4	4.6	3.0	3.5
55~59세	2005	63.1	9.5	7.9	8.9	4.7	5.7	4.1	0.8	4.1
	2010	66.5	7.2	8.8	8.9	6.0	6.0	4.5	2.0	4.5
	2015	70.6	4.8	10.8	8.9	5.9	7.2	4.6	3.4	4.7
	2014. 1~10	70.8	5.8	10.9	8.7	6.3	7.3	4.5	3.3	4.7
	2015. 1~10	70.5	4.9	10.8	8.9	5.9	7.2	4.6	3.4	4.6
	2016. 1~10	70.8	4.4	10.6	9.0	6.2	7.3	4.2	3.5	4.6
60~64세	2005	53.4	14.7	5.2	6.9	3.1	4.1	4.7	0.5	3.2
	2010	53.7	10.1	4.7	7.4	4.1	3.7	5.7	1.1	3.8
	2015	59.4	7.4	6.1	7.7	5.6	5.7	6.1	2.8	4.4
	2014. 1~10	58.2	8.5	4.9	7.2	5.9	4.9	5.6	2.5	4.6
	2015. 1~10	59.5	7.6	5.9	7.7	5.6	5.7	6.1	2.7	4.3
	2016. 1~10	59.4	6.8	6.6	6.9	5.6	5.8	6.0	3.0	4.4
65~79세	2005	33.4	17.4	1.7	4.8	1.0	1.1	1.7	0.2	1.4
	2010	33.0	13.6	1.8	4.5	1.5	1.1	2.4	1.0	1.3
	2015	35.2	10.4	2.0	4.5	2.3	1.6	3.6	2.5	2.0
	2014. 1~10	35.9	12.0	1.8	4.6	2.2	1.5	3.2	2.2	1.8
	2015. 1~10	35.4	10.7	2.0	4.6	2.3	1.6	3.5	2.5	2.0
	2016. 1~10	35.6	9.9	2.2	4.1	2.3	1.7	4.2	2.7	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고령층 재취업 일자리의 특성³⁾

고령층(55~64세) 임금근로자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를 재취업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 2016년 고령층 중 재취업자는 58.0%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의 장기근속자가 많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고령층 재취업자

3) 임금근로자 중 현재 일자리가 생애 가장 오랜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재취업으로 판단했으며, 본 항목은 55~64세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고령층 부가조사).

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와 재취업한 일자리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 변화를 통해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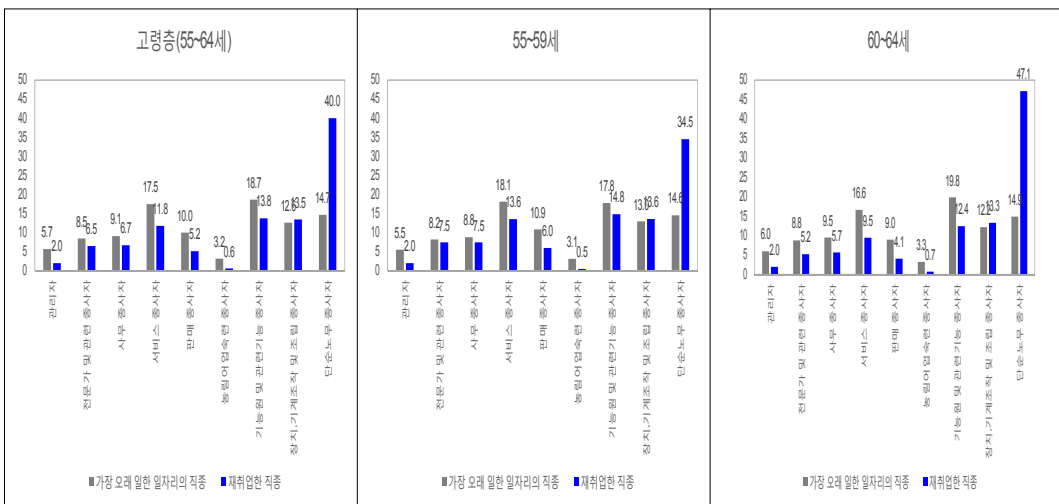
고령층 재취업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직종(이직시 직종)과 재취업한 일자리의 직종 변화를 보면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그림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 재취업자의 이전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서비스 판매자,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립종사자의 비중이 고르게 분포된 반면 재취업된 일자리의 직종은 단순노무직종에 쏠려 있으며, 단순노무직종으로의 쏠림현상은 60~64세 연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

직종변화를 성별로 보면 고령층 여성 임금근로자의 재취업 일자리는 단순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고령층 여성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고령층의 여성 취업자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종으로의 쏠림현상은 전반적으로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고령층 남성 또한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은 가운데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중도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직종 분포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층(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재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를 보면 재취업자의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40.1%로 나타나 장기근속자의 상용직 비중(72.6%)보다 크게 낮았으며, 고령층 여성 재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더욱 낮은 30.2%로 나타났다. 이들 재취업자의 21.8%가 이직 시 비임금근로자(=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였으며, 그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상용직 비중은 43.5%로 증

[그림 7] 고령층(55~64세) 재취업자의 직종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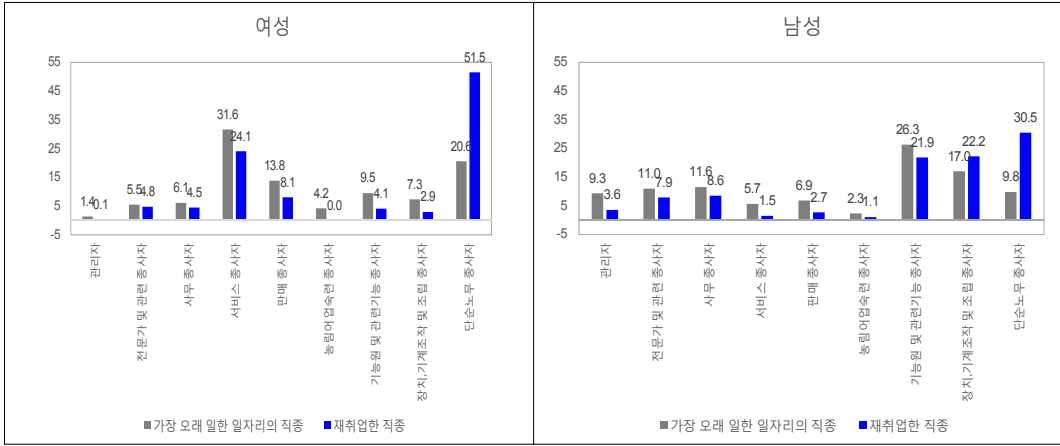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8] 고령층(55~64세) 재취업자의 성별 직종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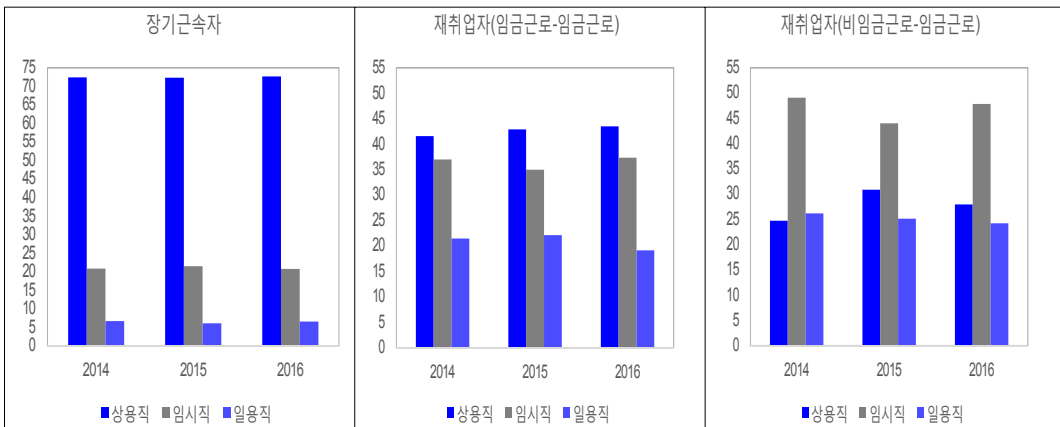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하는 추세인 반면 비임금근로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상용직 비중은 27.9%로 나타나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비중과 역할은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61.2%가 장래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적으로 72세까지 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고령층(55~64세)의 거의 대부분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그림 9] 고령층(55~64세) 장기근속자·재취업자(임금근로→임금근로, 비임금근로→임금근로)의 종사상지위 변화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있으며,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들 다수가 노후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그래서 질이 낮은 일자리라도 찾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고령층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특히 시간제 일자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즐거움’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 대다수의 고령층을 위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다각적인 접근과, 노동시장에서 쌓았던 숙련과 경험을 정년·은퇴 이후에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령층 일자리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⁴⁾

Ⅲ. 고령층의 빈곤 상태 변화(2011·2014년)

전체 임금근로자(2016년 8월 시간당 임금 기준) 대비 고령층(55~79세)의 상대임금은 83.8% 수준(60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임금 수준은 66.1%)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령층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상대임금 수준은 63.6%이며, 여성 고령층 시간제 근로자의 상대임금 수준은 51.8%로 더욱 낮다. 고령층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고령층의 저임금근로자 증가로 귀결된다. 고령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6년 현재 42.2%이며,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 근로자는 2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고령층의 임금분포는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분포보다 낮은 임금수준에 치우쳐 있음을 [그림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⁵⁾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1~14년)에 의하면, 가구주가 60세 이상 고령층인 경우 2001년의 소득분위가 2014년에도 유지된 가구 비율은 64.3%로 39세 이하(50.9%), 40~59세(52.4%) 연령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소득분위가 하락한 가구 비율이 상승한 가구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은 은퇴와 함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분위의 하락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

4)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고령자(65세 이상)의 비율(46.9%)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65세 이상)의 생활비는 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한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마련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44.7%로 가장 높았다. 부모부양은 ‘가족’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2014년 34.1%로 2006년 67.3%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5) 60세 이상 고령층의 임금수준 분포는 55~79세보다 낮은 수준에 치우친 정도가 더 크다.

인다.

이와 더불어 가구주 연령별 빈곤상태 이동을 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 고령층인 가구의 빈곤진입률은 18.2%로 다른 연령층 가구주의 가구보다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층 가구주 가

〈표 3〉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시간제 근로 비중·저임금 근로 비중 추이

(단위 : %)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2014. 8	2015. 8	2016. 8
비정규비중	58.1	59.7	59.1	57.1	61.6	58.7	57.8	56.6	56.2	54.7	53.8	53.8
시간제비중	20.7	23.6	24.4	27.4	26.4	32.5	33.1	37.9	37.7	38.9	41.7	42.0
저임금 비중	54.1	57.9	55.3	54.9	53.6	53.8	52.9	50.5	49.5	45.8	41.0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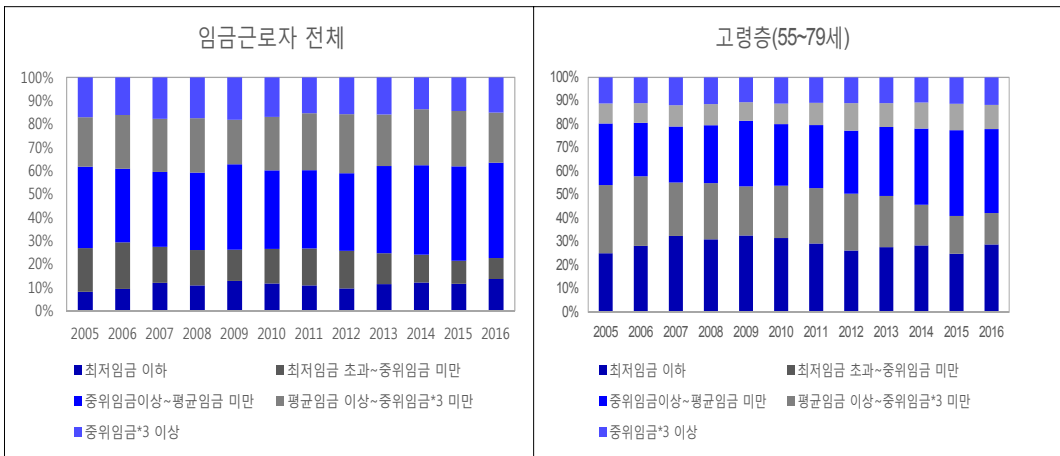
주 : 시간당 임금 기준임. 저임금근로자는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임금근로자를 의미함.

시간제 근로는 비정규직 내 시간제 근로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0〉 고령층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비중

(단위 : %)



주 : 시간당 임금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 가구의 빈곤상태 이동(2011→2014년)

(단위 : %)

	2011년	2014년	
		빈곤하지 않음	빈곤함
60세 이상	빈곤하지 않음	81.8	18.2**
	빈곤함	18.9*	81.1

주 : *는 빈곤탈출률, **는 빈곤진입률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2016. 2),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분석』 보도자료.

구의 빈곤탈출률은 18.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빈곤상태(2011년과 2014년) 이동을 보면 ‘빈곤하지 않음’에서 ‘빈곤함’으로 이동한 빈곤진입률은 8.4%이고, ‘빈곤함’에서 ‘빈곤하지 않음’으로 이동한 빈곤탈출률은 38.1%로 나타나 고령층 가구주 가구의 빈곤진입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빈곤탈출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는 한편으론 2011년 빈곤했던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 가구가 2014년에도 여전히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81.1%라는 의미이며,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면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의 처분가능소득(2015년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기준, 가구원수 1인)의 구성을 보면 공적이전소득(40.9%)과 근로소득(21.0%)의 비중이 높고, 재산소득은 한 자릿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 가구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로 본다면 이들 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근로소득 또한 각각 35.0%, 29.4%로 다른 소득에 비해 비중이 높은 반면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 가구(가구원수 2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5년 현재 47.6%였으며, 노인 단독가구(나홀로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고령층(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2년 이후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빈곤선 미만(중위소득 50% 미만)에 있는 60세 이상 나홀로 가구의 취업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 빈곤이 실업으로 인한 빈곤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낮은 곳에 취업됨으로써 일하고 있는 노인 빈곤층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60세 이상 고령층(가구원수가 2인 이하·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층 취업자의 비율 추이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상대적 빈곤율	2인 이하 가구	49.9	50.3	50.3	51.9	51.3	51.6	51.6	50.9	47.6
	1인 가구	66.4	66.4	69.0	71.1	71.4	70.1	68.3	69.4	67.1
취업자 비율	2인 이하 가구	32.6	14.1	30.6	36.1	37.4	35.3	35.5	35.3	35.0
	1인 가구	19.5	16.4	20.4	24.7	24.0	25.3	29.7	27.5	28.8

주 :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6) 2011년 1차년도부터 2014년 4차년도까지 계속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규모 순으로 가구를 20%씩 5개로 구분(1분위(하위 20%)~5분위(상위 20%))하고 있다. 빈곤진입률은 $\frac{2011년 '빈곤하지 않음'에서 2014년 '빈곤함'으로진입한 가구원수}{2011년 '빈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가구원수}$, 빈곤탈출률은 $\frac{2011년 '빈곤함'에서 2014년 '빈곤하지 않음'으로진입한 가구원수}{2011년 '빈곤함'에 해당하는 가구원수}$ 로 계산되며, 빈곤기준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앙값 5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IV. 맺음말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으로의 고령층 인구의 유입(생산가능인구의 28.6%로 전년동평균대비 1.0%p ↑)과 더불어 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참여 의지로 2016년 고용증가폭 둔화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고령층 내부에서 겪고 있는 고용구조변화를 보면 ‘고용증가세를 고령층이 견인’하고 있는 현실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가 없다.

첫째, 고령층의 일자리가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거나 상용-비정규직 비중이 30%가 넘고 상용-비정규직은 주로 단순노무 직종에 분포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고령층의 자영업 구조조정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고령층의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업체 비중이 높고, 이들은 정년·은퇴 이후 퇴직금 등을 자본으로 해서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업종은 이미 시장에서 포화상태이면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휴폐업이 잦다. 고령층 자영업의 도산은 도미노처럼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셋째, 고령층 고용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를 보면 10년 전에 비해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문에서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쌓은 숙련과는 거리가 먼 청소용역관련 직종, 요양시설 등에서의 간병인 등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이 핵심연령층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쌓았던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령층 임금근로자 중에서 재취업한 일자리의 질(직종, 종사상 지위)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 비해 열악해 ‘불안한 재취업’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이 한번 빈곤상태로 진입하게 되면 빈곤을 탈출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고령층의 대다수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노후설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후를 맞게 되면서 ‘노후소득의 부족은 취약한 일자리로의 진입’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활동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인구로의 유입이 대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고의 연구결과는 향후 고령층 일자리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KLI**

[참고문헌]

김복순(2016. 9), 「고령층 고용구조변화 소득불평등 추이」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2016),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분석」 보도자료.
_____, 「고령자통계」 보도자료.